



각국 제품안전정책 · 기준 · 동향 한눈에

‘국제 제품안전워크숍’ 개최... 공통 안전규정 제정고 논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제품안전정책과 최신 동향, 국제 공통 안전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을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8일 한국언론재단(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했다.

제1부 국제기구 세션에서는,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의장 및 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ICPSC) 의장이 참석,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 적용 확대 등 국제동향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욱 회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의 리콜 표준 및 사업자 제품안전가이드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비자시민모임의 문은숙 기획처장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부 주요국 세션에서는 유럽·캐나다·일본·한국 등 4개국 정부관계자가 자국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설명

하고 국제협력 활동 등을 발표했다.



기술표준원 전대천 제품안전정책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각국의 안전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17일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와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과의 제품안전관리 양자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 지난 3월부터 개편·시행중인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기구(ISO-COPOLCO, ICPHSO, ICPSC) 개요

1. ISO-COPOLCO (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 설립 및 구성 : 1978년 ISO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출범
- ※ 총 회원국 : 98개국(정회원 58개국, 준회원국 40개국)

- 역할 : 국제소비자 표준정책 개발 및 ISO/IEC에 소비자 정책 권고
- ※ SR(Social Responsibility), 리콜표준화 개발 및 제품 안전가이드 제정 추진 등

- 주요 활동 : 매년 총회 및 개도국 워크숍 개최
- ※ 제품안전 등 6개 작업반 및 의장자문단 운영

- 우리나라 참여 현황 : 2002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 '05년부터 의장국(김재욱 회장이 COPOLCO의장)으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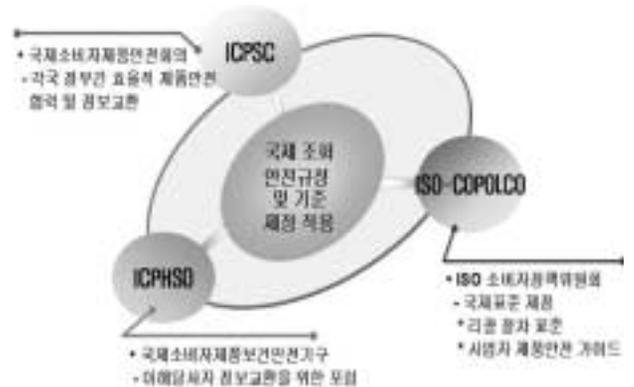
2. ICPHSO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 ;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 설립 및 구성 : 1993년 결성, 제품안전 정부당국자·소비자단체·인증기관·변호사/회계사/컨설팅 등 민간



- 전문가가 참여
 - ※ 매년 회의(200명 정도 참여) 및 유럽·아시아 지역 워크샵 개최
 - 주요 활동 : 각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정책 소개, 정보 교류 및 제품안전 국제기준 조화
 - ※ '06년 베데스다 선언 발표 : 미국(베데스다)에서 제품안전 관련 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적으로 조화 있는 안전규정(harmonized safety regulations)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문 발표
3. ICPSC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Caucus ; 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
- 설립 및 구성 : 2005년 결성, 제품안전 정부당국자 참여

- ※ 매년 ICPHSO 회의와 연계하여 회의 개최 (약 30개국 참여)
- 주요 활동 :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국제협력, 우수 관행 및 국제표준 제정 추진 (3개의 작업반 운영)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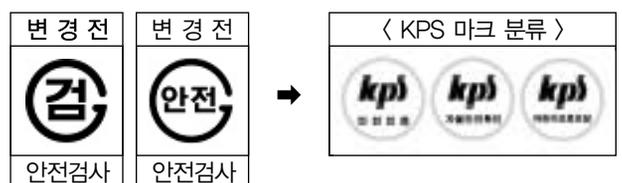
- 설립 및 구성 :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기반 정비 (01.4)
- ※ NITE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Evaluation
- ※ 직원수 : 543명 (임원 5, 상근 409, 비상근 129)
- 주요 업무
 - 생활안전 :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편의 정보 제공

- 인정제도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 수립·관리
- 바이오기술 :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생물분야 기술 개발
- 화학관리 : 화학물질 종합관리를 위한 지적기반정비 및 기술지원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1. 위해정도에 따른 제품 안전관리방법의 합리적 개선
- 기존 안전검사(39품목)는 안전인증(18품목)로 검사 강화
 - ※ 제품검사→제품·공장검사
 - 기존 안전검정(31품목) 및 품질표시(24품목)는 자율안전확인(47품목) 및 안전·품질표시(14품목)로 의무화

-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 도입



※ KPS : Korea Products Safety